



주 제:	“이웃의 믿음”	“연중 제 7 주일”	2009년 2월 22일
복음 묵상:	[마르 2,1-12]	[이사 43,18-19.21-22.24 ~-25]	[2 고린 1,18-22]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중풍 병자는 예수님을 뵈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뵈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를 보시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극성스러운 행동과 중풍 병자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가지 못하는 ‘중풍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비신자 배우자일 수 있고, 오랜 냉담으로 성당에 나올 용기가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번이나 성당 앞에 갔다 발길을 돌린 이들이 ‘중풍 병자’의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일어난 죄의 용서는 중풍 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까지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웃의 도움으로 죄의 용서와 기적을 체험한 ‘중풍 병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굳이 어 다가를 사순시기를 준비하며 나 자신의 회개와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여 지치고 힘든 이웃들도 함께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줄 수 있는 한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 2,5b)(수원 이정훈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우중에도 불구하고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의 음악회에 성가대의 많은 가족들이 왕림하시어 성황을 이루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 2/16(월)부터 주사 치료를 1년동안 하게되었습니다. 힘들어 하는 자매님께 주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토의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책유를 빌면서 알토파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각자 묵주기도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공지사항:

1. 각 파트별로 주중 연습 안내
 알토 파트; 오전 11시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택
 남성부 (테너, 베이스); 격주 금요일(2/20) 저녁 7:30 pm, 단장님택.
 소프라노;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당에서 연습할 것임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 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 내려 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증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 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사순시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대축일 전 2~3 일간 금식하며 부활을 준비했고, 4 세기 중엽 로마교회는 이를 연장해 부활 전 40 일부터 성 토요일까지 금식과 회개의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이 사순절의 유래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었기에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절 40 일에서는 제외됐다.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축일 전 6 주간 중에서 주님의 축일인 주일을 뺀 40 일간이다.
 * 6 주간 × 7 일 - 6 일(주일) + 4 일(재의 수요일까지 역산) = 40 일

재의 수요일

이날부터 재의는 자색(보라색)으로 바뀌고 재를 축성하여 이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등 성당의 전체 분위기가 침울해진다. 재는 죽음을 상징하고, 재를 얹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을 채찍질하여 낮추고 참되게 사는 방법을 찾도록 한다. 사제는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주었던 성지를 회수하여 재를 만들고, 이를 축성하여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창세 3, 19) 하며 자신과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다. 교회는 이날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키기를 명하고 극기, 금욕, 자선을 권장한다.

1분 명상

♡ 재의 수요일 아침에.♡ 이 해인



무덤에서 본 하늘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마에 재를 얹어 주는 사제의 목소리도
 잿빛으로 가라앉은 재의 수요일 아침
 꽃 한송이 없는 제단 앞에서 눈을 감으면
 삶은 하나의 시장기임이 문득 새롭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자기의 죽음은 너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숨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발견에 차츰 무디어 가는
 내마음을 위해서도
 오늘은 맑게 울어야겠습니다.
 먼지 낀 마음의 유리창을
 오랜만에 닦아 내며 하늘을 바라보는 경허한 아침
 땅도 사람도 가까워질 수 있음을 새롭게 배웁니다.
 사랑없으면 더욱 짐이 되는 일상의 무게와
 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조차
 담담히 받아들이는 일
 이 또한 기도의 시작임을 깨닫는
 재의 수요일 아침입니다.

◆ 인생 덕 목 (人 生 德 目) ◆



- 故 김수환 추기경 말씀 -

• 말(言)

- 말을 많이 하면 필요없는 말이 나온다.
- 양귀로 많이 들으며,
- 입은 3번 생각하고 열라.

• 책(讀書)

- 수입의 1%를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 책은 시간이 지나도
-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 노점상(露店商)

-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말라.
-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 부르는대로 주고 사면
-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 웃음(笑)

- 웃는 연습을 생활화 하라.
-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 노인을 젊게하고,
- 젊은이를 동자(童子)로 만든다.

• TV(바보상자)

-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 동거하지 말라.
-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 텔레비전에 취하면
- 모든게 마비 된 바보가 된다.

• 성냄(禍)

-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 늘 외롭고 쓸쓸하다.

• 기도(祈禱)

-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 1000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 한줄기 빛이다.
-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손을 모으고
- 기도하는자가 더 강하다.
- 기도는 자성을 찾게하며
- 만생을 요역하게 하는 묘약이다.

• 이웃(隣)

-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말라.
-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 큰거울이다.
-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
- 자신을 꼼꼼히 되돌아 봐야 한다.

• 사랑(慈愛)

-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 자기낮춤이 선행된다
-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 70년 걸렸다.'